

문제 1

1. “ 우선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제시문은 (가)와 (라)이다.(가)의 사회는 개개인의 욕구와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려고 한다.다시 말해,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견이 사회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의지가 사회체제의 규칙을 확립하는데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개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관망자적 관점’ 이 빠졌고, 관망자적 관점이 가능한 이유인 공감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부족한 근거서술입니다. 이들은 제시문 (가)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필수적 근거입니다.

2. “하지만 강한 공동체적 유대가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된 경우엔,일반 시민도 부도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의 개인은 사회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다.결국,(가)의 개인이 (라)의 개인보다 사회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 이 또한 제시문 불일치입니다. 제시문 (라)에선 유대를 통해 이기주의로 변질하지 않습니다. 유대를 통해 오히려 불의를 거부함으로써 제시문 불일치 완벽한 감점요소입니다. 큰 감점이네요.

3. “다시 말해,개인은 사회의 질서 확립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는 도덕적인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조직하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사실상 오류입니다. 개인은 이기심이 어느정도 존재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다)순서로 서술한 답안의 링크가 있을텐데 확인해보시면 근거로써 이부분은 일부로 서술하지 않았습니. 그냥 생략해 버린것이죠. 그렇다면 논리상으로 어색한 근거를 제외하고 더 중요한 근거를 어필해 근거상의 오류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근거상의 오류가 생기네요.

4. 이 문제의 답을 알고 푸셨나요? 알고 푸신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알고 답안을 쓰시는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답을 알면서도 왜 이 답안이 나올 수 밖에 없지라는 근거를 생각해 보시는게 공부입니다. 현재 답은 맞지만 근거가 모두 틀려 좋은 답안이 아닌 논리상 오류가 넘쳐나는 답안입니다.

문제 2

1.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사실 이런 비교는 발문에서 요구한 바는 아니지만 1번 문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우선 구성원간의 갈등을 개인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은 (나)와 (라)이다.(나)의 경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바를 습득한다.” 사실 1번 비교에서 제시문 (나)는 사회에 개인이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적 관점으로 (나)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면 1번 답안과 논지가 이탈됩니다. 큰 상관은 없지만 한 답안지라는 개념에서 1번과 2번에서 내용이 바뀌어버리네요. 이걸 좋지 않습니다.

“(나)에 있어 사회가 부과하는 체제나 법률로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나와 사회에게 모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사고할 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정체성의 발현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라)에서도 시민들의 도덕성 함양을 강조할 것인데, 진정한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갈등이 발생할 때엔, 공청회 등을 통해 개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논의하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

슬래쉬 친 앞부분이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라)에서도 핵심인 ‘공동체 유대의 강화’ 가 1번 답안의 2번 지적에서 유대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또한 문제가 생기네요.

3. “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은 (가)와 (다)이다. 우선 (가)에 있어, 사회 체제의 정립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체제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개개인의 요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1원칙이지만, 모두의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상호간에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날 때엔, 특정한 사회 기관이나 합리적인 개인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문제죠, 제시문 (가)는 개인의 관점인데 갑자기 관망자가 왜 사회가 되나요?

4. “다)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 개입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도저히 주체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강력한 법 체제 등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이런 서술보다 제시문(다)에 따르면 단지, 이기주의를 규제할 체제의 정비면 충분합니다. 논리가 돌아가네요.